

# 광주시, 실내마스크 해제 시기 정부 결정 따른다

### “전국 일일생활권... 일관된 방역정책 필요 판단”

### “감염취약시설·어르신 접종률 60% 이상 높여야”

대전시와 충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시는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

19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만큼, 특정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경우 국내 다른 지역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간 일관된 방역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지역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

실내마스크 해제보다는 감염취약시설과 어르신들 접종률을 60% 이상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 간 일관성 있는 방역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광주에서는 모두 2551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시 총 누적 확진자는 전날 기준 80만2140명이다.

최근 확진자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지난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1만1682명으로, 일평균 166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주 1만646명 대비 9.7% 증가했지만, 지난주부터 증가 폭이

다소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평균 발생률도 122.1명으로, 17개 시도 중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7로 10월 3주부터 8주 연속 1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류 국장은 “확진일 또는 접종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개량백신을 이용한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 해달라”며 “1일 3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자주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생활 속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청문회...전문성 부족 '도마'

7일 실시된 조익문(61)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문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철도 관련 경험이 전무하고, 공공기관 등을 직접 경영한 경험도 거의 없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잖다”며 전문성 부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은 “이력을 모두 살펴보면 철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고,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 의원은 “최고책임자로서의 경영도 없어, 통합 교통기관의 수장을 맡기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성명을 내고 “조 내정자는 교통전문가가 아니고 경영과 행정 경험도 부족해 광역 교통의 전반적인 정책을 아우르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내정자는 “철도전문가는 아니고 ‘직접 경영’의 경험도 부족하긴 하지만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경험과 풍부한 인적네트워크, LH와 농어촌공사 활동 경험을 토대로 자산 삼아 각종 현안 해결과 비전 제시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임 사장 6명 가운데 단 1명만 빠고 모두 철도와는 무관한 일반공직자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청문위원들은 이 밖에 조 내정자가 경영하다 수년 전 양도한 한 업체가 건설사로 전환한 뒤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공교롭게도 조 내정자도 태양광 관련 사업체를 2개 운영중인 점을 들어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내정자는 “2009년부터 운영하던 업체를 양도한 후로는 해당 업체나 양수인과는 관련이 전혀 없고 지분도 없고, 등기부상에도 관련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혹여 관계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임계점에 달한 적자경영과 무임승차 문제, 양동시장역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정당 경력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시 산하 4대 공기업 중 하나로, 사장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 간이며, 연봉은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수당을 합쳐 1억 여원에 이른다.

## 전남도,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공동체 구현 온힘

### 도민 인권증진 토론회서 관련 조례제정 등 논의

전라남도인권센터는 6일 도청 왕인실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방안 마련과 인권공동체 구현 촉진을 위한 '2022년 전라남도 도민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교수, 변호사, 도의원, 민간단체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인권센터가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선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주노동자 관련 향후 과제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조례 제

정 ▲이주노동자 인권환경 모니터링 및 종합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김원규 변호사는 '이주노동 관련 법적 쟁점과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발표, “이주노동자의 국적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정체성에 주목해 국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지정토론에선 안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태 전남도의원,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윤영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지원 네트워크 대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지자체가 이주노동자를 인력 활용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



여야 하고,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규용 전남도 차행정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며 “전남도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전남개발공사 '식수난' 소안도에 생수 2만1000병 지원

전남개발공사가 최악의 가뭄으로 생수원이 고갈돼 고통을 받고 있는 완도군 소안도 주민들에게 생수 32t, 1000만원 어치를 전달했다.

6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장기간 식수난을 겪고 있는 소안면에 2리터(ℓ)들이 생수 2만1000개를 보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현재 소안도는 식수를 공급하는 미래제수원지 저수율이 4%를 밑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 주민들이 단수와 적일제 급수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소안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생수 지원에 나섰다”며 “하루빨리 가

뭉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뭄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 소안도에 생수를 지원했다. (사진=전남개발공사 제공)

## 철도연, 공공형 전동 킷보드 운영 실증 연구

### 전라선 여수엑스포역과 영동선 분천역서 실시...일정 구역서 대여·반납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은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약 1개월간 전라선 여수엑스포역과 영동선 분천역에서 공공형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시스템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 연구는 자동충전 스테이션과 스마트 스코어링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철도연은 공공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입하기 위해 기반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여수엑스포역과 분천역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자동충전 스테이션은 일정한 구역에서만 기기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해 불법주차를 예방할 수 있고 거처시 충전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기 때문에 충전을 위한 별도의 수거 작업도 필요 없는 다목적 거처 장치이다.

또한 스마트 스코어링을 기기에 부착해 영상수집장치에 운전자의 운행습관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운전습관을 평가하게 된다.

철도연은 여수시와 봉화군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공공형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시스템을 철도역과 인근 지역에 배치해 시범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여수엑스포역에 전동킷보드 10대와 자동충전스테이션 10대를 배치해 운영 영상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반기술을 테스트 한다.

정승호 기자

한국연금저축재단  
Korea Pension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넘어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구분       | 보험료부담액   | 급여비      | 배율   |
|----------|----------|----------|------|
| 5분위 고소득층 | 240,839원 | 125,531원 | 1.7배 |
| 4분위      | 125,531원 | 79,147원  | 2.1배 |
| 3분위      | 79,147원  | 48,103원  | 2.7배 |
| 2분위      | 48,103원  | 26,697원  | 5.3배 |
| 1분위 저소득층 | 26,697원  | -        |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